

마가복음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GOOD NEWS

마가복음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제2판, 2020년 4월

© Kirche für Alle e.V. - 모든 권리 보유.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1-0

Kirche für Alle e.V.

Hans-Jörg Ronsdorf

Albis 6 1/2

87477 Sulzberg

hj-ronsdorf@t-online.de

www.hans-joerg-ronsdorf.de

표지 디자인: 토비아스 슈트릭커(Tobias Stricker)

kata Markon

보십시오, 예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모든 아름다움을 뛰어넘으시는 분!

먼저 몇 가지 안내

마가복음은 꽤 별난 책입니다. 털옷을 입고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 요한으로 시작해서, 잔혹한 십자가 처형과 놀라운 예수의 부활로 끝납니다. 마가는 불안하게 하는, 아니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귀신이 가득한 곳들, 폭발할 듯한 충돌들,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이 신비하게 불어나고,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다스리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조금 모험 소설 같습니다 - 사건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깊이가 있으며, 흑백이 뚜렷한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읽는 사람은 숨을 죽이고, 많은 질문을 안은 채 남겨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마가는 올바른 답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마가복음을 풀어 설명하며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 쓴 본문 옆에 다른 번역 성경을 함께 펴 놓으십시오. 되도록 꽤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Elberfelder, Luther, Einheitsübersetzung(독일어 성경 번역본) 같은 번역입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온전히 전하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오래된 복음서일 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쉬지 않고, 거의 숨 가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맞으신 끝까지입니다. 약 3년의 기간입니다.

이 복음서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솟는 우물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입니다. 보기보다 깊습니다. 첫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옮김은 그런 영적인 보화에 다가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곧바로 1장부터 마가의 기록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다음의 머리글은 그냥 건너뛰거나 나중에 읽으셔도 됩니다.

복음서의 저자

오랫동안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줄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만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미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의 기록을 자기 글에 녹여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두 제자, 곧 목격자들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열두 사도의 대변자였던 베드로의 기록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는 글쓰기를 즐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애,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훗날 그의 동역자이자 측근이 된 요한 마가가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사람이 이 복음서의 저자라는 것이 널리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목격자이자, 아주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도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둘러싼 가장 안쪽 무리를 이룬 요한과 야고보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 생애 기록은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 그 권위를 얻습니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기억하고 설교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교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기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설교된 복음, **선포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포자로서 씁니다. 하나님의 좋은 구원 소식을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전하는 사람으로서 씁니다.

마가는 사건들의 정확한 역사적 순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저 역사 기록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복음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엮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세세하게 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그분의 공적인 등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고 도전적으로 펼쳐 보이기를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는 듯합니다.

마가가 언제 이 복음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기원후 60년에서 70년 사이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인지 후인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됩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시대, 곧 로마 대화재와 그 뒤에 이어진 그리스도인 박해 이후로 연대를 잡는 데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로마의 불은 네로 황제가 직접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산 채로 횃불이 되고, 맹수들에게 던져지면서, 박해는 그들을 가장 혹독하게 덮쳤습니다. 마가는 자기 복음서의 큰 부분을 예수의 고난 이야기, 곧 수난에 바칩니다. 그는 예수께서 겪으신 시련과 반대를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생애와 수난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묘사할까요?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들이라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지니십니다. 이것은 다니엘 7:13의 메아리입니다. 거기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을 부르는 이름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가까운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나사렛 출신 건축 일꾼의 아들,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뛰어나고 유일한 **존귀한 칭호**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오를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종**이십니다. 마가가 그분을 직접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사명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 역사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뒤돌아보는 그에게는 수정처럼 맑게 분명했던 것이, 실제 사건 속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과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명은 대부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감동하여 입 밖에 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치 마가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정체에 대한 긴장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그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떻게 응답해야 했을까요? 믿음과 생각의 전환, 곧 회개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용서를 베푸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속합니다. 사탄과 그의 나라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무기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코 덜 극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자랍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단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급격한 변혁, 곧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마가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통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 인자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전히 임하여 온 땅을 채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십자가를 거쳐서 옵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그때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의 원리, 법, 표지는 사랑, 섬김, 이웃을 향한 헌신, 겸손과

평화입니다. 폭력과 예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미래의 삶을 지금 이미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약의 메아리

마가에게 - 그리고 베드로에게 - 히브리 성경, 곧 구약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와 누가처럼 구약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암시들과 많은 **구약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늘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넌지시 가리키는 말과 작은 실마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품고 보면 마가의 기록 전체를 꿰뚫는 붉은 실들이 보입니다. **마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새로 쓰는가?** 이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 아니 새로운 출애굽이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고 싶어 하시는 곳에 영적으로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역사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 발견되는가?** 복잡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셔서, 이 백성의 길을 다시 한번 걸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본래의 사명으로 풀어 주려고 하십니다. **마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맡은 역할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마가 자신도 예수를 통해 생겨난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도 옛 성경에서 배웁니다. 처음에 교회에게는 성경이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옮김에서 마가를 보충하려고 다른 복음서들을 인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본문을 나란히 놓아 사건들을 되도록 완전하게 그려 볼 수 있게 한 **복음서 대조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읽기 방식이고 아주 흥미롭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목표는 아닙니다.

요한 마가의 주된 관심사

이 머리글을 마치며 마가가 마음에 품은 **주된 관심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참된 정체. 예수께서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야 바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선포될 때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채로 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예수의 수난, 곧 그분의 고난 이야기는 예수께서 참으로 누구인지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바로 이어져서 박해, 고난, 순교가 참된 **제자의 삶**의 표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오심,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질문.

갈릴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이 그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아셨던, 이웃한 이방 민족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그의 묘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예수의 참된 가족, 그리고 특히 그분의 제자들, 곧 열두 제자입니다.

마가의 메시지를 듣거나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수 앞에 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느냐?**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언젠가가 아닙니다. 마가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황제인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에 대해 적은 모든 것을 모아, 저자 마가 시대의 정치적 긴장 속에 놓아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황제도 이런 주장을 참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첫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Divi Filius”, 곧 신적인 존재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황제는 평화, 곧 “Pax Romana”를 가져다준 메시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약속된 평강의 왕이십니다.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에게는 두 가지 기적이 돌려졌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친 일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하늘이 그를 인정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로 하늘이 열리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이 복음서를 받았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짐승 같은 네로 황제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몰락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압박과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을 한계로 몰아잡니다. 그것은 실패와 배신과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모든 주제를 의도 없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 있는 메시지입니다.

1장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미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가 오래전에 전령이 올 것을 알렸습니다. 주님이신 여호와보다 앞서 갈 전령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알리고 준비할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길, 여호와와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이 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은혜 가운데 오십니다. 회복하시려고 오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3:20의 말씀도 이 인용 속에 함께 올립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너를 약속한 곳으로 데려가게 한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새로 들어가는 일을 알리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새로운 땅 차지입니다. 그때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격과 능력 안에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진군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침묵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400년이 지난 뒤, 이제 선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깨우는 외침이 울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울렸습니다. 억눌리고, 예언들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불안해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메시아는 보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깨끗한 마음과 철저한 삶의 변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령: 세레 요한

전령인 세레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세레를 받고, 삶을 철저히 바꾸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과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원래 세레는 개종자, 곧 유대교로 넘어오는 이방인들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속에 잠기는 세레를 받고, 상징적으로 자기 죄를 씻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뉘우쳤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들은 죄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을 뜻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일부에게는 그랬습니다. 요한은 아무런 편안함 없이 살았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죽 띠로 묶은, 낙타털로 된 소박한 겹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내 뒤에, 내 사역이 끝나면, 나보다 강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워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알린 그대로다. 너희에게는 깨끗하게 됨과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길 힘도 필요하다.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미리 알렸는데도, 갑작스럽고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한과 같은 나이의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의 친척이 갑자기 요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그에게 나아온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니신데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요한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놀랍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위에서 사람에게 내려앉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수께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온전한 기쁨이다!”** 그분은 이미 3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인 사역의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그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은 이사야 63:19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굳은 마음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방 민족들의 권세 때문에 절망하며 그 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메시아 위에 오셨습니다. 비참함을 돌이키고, 모든 것을 뒤집어 다시 다스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섬김의 삶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 싸움이 먼저 옵니다. 싸움은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시작됩니다. 그분 위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곧바로 그분을 유대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사십 일을 계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곧 마귀가 이 기간에 그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타협과 불순종으로 사람들을 위한 이 싸움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분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며 지키고 힘을 북돋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신이 함께 있음을 그분께 알리셨습니다. **사람들과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의 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로써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에 넘겨지고 그의 목소리가 잠잠해진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다. 그렇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능력으로 세상 속에 밀고 들어온다. 지금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을 때다. 오직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복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교리나 교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죄와 질병과 두려움과 귀신 들림과 죽음과 마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마지막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을 죄와 그 모든 결과의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시려는 것입니다.**

첫 제자들 -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게 하시다

그분이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 걸어가실 때, 두 어부를 보십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니 또 두 어부가 배 곁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의 두 사람처럼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곧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몇 해 동안, 아니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평범한 어부들이 당시의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시작하신 일을 이어 갈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침의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건축 일꾼이신 그분이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진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서 듣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와 자기네 학자들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지혜 자체이신 것처럼, 제2의 모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은 그 사람을 지배하며, 그가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영들은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지한 사람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인간됨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 그 악한 영,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떠나기 싫어서, 귀신은 그를 이리저리 잡아 흔들고, 큰 소리로 자기 패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 물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무슨 새로운 가르침인가? 우리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그가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아니 그 앞에서 달아나기까지 하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들불처럼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뒤 곧바로 그들은 회당을 떠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대 없이 그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알고는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셨고, 열병이 곧바로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곧 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섬기며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가버나움 마을 거의 전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대로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 더럽고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분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사람으로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귀신들에게서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그들의 죄에서도.**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 모두가 아직 잠들어 있고 아직 어두울 때, 그분은 벌써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적하고 쓸쓸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사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분을 찾아내자 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파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나는 한곳에 머물 수 없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마을에서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길 위의 나병 환자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하나가 그분께 옵니다. 도시 밖 길 위에서였습니다. 그는 결코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절박한 도움의 외침에, 그러나 또한 그 확신에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연민과 긍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한 피부병이 옮을까 하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산 채로 죽어 가도록 정죄되었던 그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엄히 이르고,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있는 모세의 규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서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곳곳에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나은 것을 기뻐하며 알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 놓고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을 배웠습니까?

예수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감탄을 말씀드리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 적어 두십시오!

2장

중풍병자를 위한 용서와 고침

며칠 뒤 그분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과 사방에 서 있어서, 더 이상 지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의 깔개에 눕혀 메고 왔습니다.** 그를 예수께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를 데리고 집 지붕으로 올라가, 짚과 진흙으로 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소박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바로 그분의 발 앞이었습니다. 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말 없는 치유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어찌면 지붕을 망가뜨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갔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으려고 예수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선물하십니다. 마음의 고침과 깨끗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는 평화의 가장 강한 씨앗입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이없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하고, 거기서만 제물과 함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그들의 반응을 마음으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너희는 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똑같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었습니다. 집 안과 집 앞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건강하게 나음을 입은 채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서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리 레위

그 뒤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가까운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다시 온 무리가 그분께 왔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는 길에 그분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은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한 통치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동족에게 내는 것은 더욱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그는 배신자처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앞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 직접 말을 건넨 것에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그는, 곧 일어나 자기 물건을 영영 정리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레위, 곧 마태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즐거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편안히 상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공훈을 보았고, 그분께 끌렸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다시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분께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의사가 왜 건강한 사람들 곁에만 있어야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구원과 치유를 가져오려고 왔다.** 나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러 왔다.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은 죄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용서와 마음의 치유를 가져온다. 나는 회개만 전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한 상에서 먹는다.

금식에 대한 예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예수께 왜 그분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정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때, 그렇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랑을 죽이고 혼인 잔치를 끝낼 수 있다고 믿을 때다. 큰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보여 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가지며, 모두를 위한 평화와 정의가 있을 새 세상입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겹치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 새것이 낡고 해진 천에서 떨어져 나가고, 찢어진 곳은 전보다 더 심해진다. 아직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치유, 용서, 긍휼, 소외된 사람들과의 가까움, 그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굳어 버린 생각과 전통에 맞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옛것을 이미 오래전에 셀 수 없는 계명과 금지와 불필요한 전통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체계로 부풀려 놓았습니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성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공동체에서 언제까지나 배제하던 일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끝이 났습니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쫓겨난 사람들과 거절당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새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옛것은 물러나 뒤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금지된 일을 하고 있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을 고발할 거리를 무엇이든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몹시 굶주렸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대제사장 아비야달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는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이 힘든 한 주를 보낸 뒤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 사람이 먼저 있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넌지시 가리키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아직 알아보지 못한 왕, 아직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3장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시다

그분은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같은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손이 말라 굳어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엿보았습니다.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한가운데 서라. 모두가 너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엿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나,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나, 도움을 베풀지 않아 죽게 하는 것이 옳으나?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잠잠했습니다. 이 양심의 질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데 안식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분은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잠잠히 앉아서, **언제나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안식일이든 아니든, 묻고 따질 것 없이 언제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앉은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손이 오그라드는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이 완고함과 굳은 마음 때문에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분노에 차서 나가, 정치 지도자들인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그분을 죽일지 의논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자기들의 뜻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만 먼저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언제 손을 쓸 수 있느냐뿐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두매에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왔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왔습니다. 그것은 큰 화젯거리였습니다. 그분은 이 무리에게 짓눌리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해 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분이 오는 사람을 모두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까지 그분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속의 더러운 영들은 놀라 불안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알아본 것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패배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리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로 그분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진리를 알리는 일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때도 아직 모르익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그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은 열둘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분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기 위해 예수께서 겪으시는 일을 배우고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곧 전파하는 일과,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부르심과 사역은 넓혀져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한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이상 눈에 보이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열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처럼 말입니다. 열두 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치유 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새로워짐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열두 제자**였습니다.

- 그분이 베드로(돌)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을 그분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 안드레
- 빌립
- 바돌로매
- 마태
- 도마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다대오
- 가나나인 시몬
- 그분을 넘겨준 가롯 유다

메시아의 가족 - 1부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이 그분께 옵니다. 그분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를 둘러싼 이 소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

중요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이 빠르고 가혹하게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한 집안이 서로 다투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자기 자신과 싸운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그의 끝일 것이다. 아무도 먼저 강한 자를 이겨 묶어 놓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승리자다.** 너희가 보듯이, 나는 그의 살림을 빼앗기 시작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의 모독은,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하신다고 뒤집어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족 – 2부

그사이에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하여 문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둘러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그분께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자매냐? 그리고 둘러보시며, 그분을 둘러앉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 모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온 땅에 퍼져 있고,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될 가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어쩌면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적어 두십시오!

4장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시다

씨 뿌리는 사람과 네 가지 땅의 비유: “들으라”

예수께서는 선포의 사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짓눌리지 않으면서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닿으시려고, 배에 올라 물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처럼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닿으셨습니다. 수면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교, 곧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생각해 보아라.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되도록 고르게 씨를 흩뿌린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 다른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거기서는 씨가 빨리 싹이 나서 자랐다. 해가 내리쬘자, 싹은 금세 말라 버렸다.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덤불도 빨리 자랐다. 그러나 가시덤불 아래에서 자라던 씨는 다시 숨이 막혔다. 여기서도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나고 높이 자라 열매를 맺었다. 그 양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이삭은 30알, 어떤 이삭은 60알, 또 어떤 이삭은 100알이나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정확히,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들으라!**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열두 제자와 아직 그분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친히 하나님의 씨 뿌리는 분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 너희에게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너희에게 드러났으니, 얕이요 깨달음이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유로 전해진다. 이미 이사야 6:10이 말하는 그대로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과 하는 일을 듣고 보는 굳고 완고한 마음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겠느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정말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면 다른 모든 비유는 어떻게 깨닫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여, 그것이 마음속에, 그렇다,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한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그들은 완전히 당황한다. 실망하여 믿음을 다시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다음에 삶의 염려가 찾아온다. 어쩌면 복음을 통해 기대했던 빠른 해결책이 없는 염려들이다. 재물과 출세의 유혹도 삶의 목표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욕심이 삶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 것이 복음의 말씀을 질식시킨다. 그것은 잠깐 깨어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이 좋은 땅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돌이키고 신실하려는 마음이 있는 곳, 말씀이 받아들여져 열매를 맺는 곳, 그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어려움과 질문이 있어도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서른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나 백 배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서 자라고 익게 하시는 열매다.

등불의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그릇 아래나 침대 밑에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환히 밝히는 곳에 놓아야 한다. 어둠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이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진 모든 것도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진 채로 있지 않는다. 내가 부활하여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면, 그것은 온 세상으로 전해질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정확히,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들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나누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받는다. 나를 가진 사람은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그렇다,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저 궁금해하기만 하는 사람, 나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나에게 대한 관심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몫이 없을 것이다.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땅에 씨를 뿌린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러 가고, 다시 일어난다.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씨도 싹이 트고 자랄 때까지 먼저 땅속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말이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 땅은 마치 저절로인 듯 - 부활처럼 - 열매를 내되, 처음에는 싹을, 그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다음에는 이삭 속에 밀알이 자란다. 곡식이 익으면, 그는 낫을 들고 나가 추수를 거두어들인다. 그렇다, 이미 요엘 3:13이 알린 대로 추수가 거두어들여진다. 작은 시작은 꼭 필요하고 귀하다. 그리고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단번에 눈에 보이게 어디에나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익고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 온 하나님의 추수는 올 것이다. **그렇다, 추수는 올 것이다. 말쑥을 뿌리고 끝까지 견디라!**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씨로 땅에 심긴다. 그러나 싹이 나면 크게 자란다.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 그 관목은 가지를 뻗는데, 얼마나 큰지 그 그늘에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다. 그것은 예수와 열두 제자와 함께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질 것입니다.

그분은 이 밖에도 더 많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자세히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의 폭풍을 다스리시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은 무리와 작별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준비하고, 계시던 그대로 예수를 모시고 갔습니다. 지치고 기진하신 채였습니다. 다른 배들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거센 폭풍이 일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내리쬘었습니다. 마치 적대적인 세력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에 벌써 물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개를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호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꾸짖으시며 위협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폭풍은 올 때와 똑같이 잤아들었습니다.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으냐. 그러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서로 속삭였습니다. **호수와 바람이 순종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가?**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5장

건너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풀려나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 (이사야 65:1-5)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이릅니다. 그 시절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 곧 데가볼리였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속주에 있는 열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한 사람이 그분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동굴에서, 죽은 사람들 곁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그는 모두에게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 둘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그의 발에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는 너무 힘이 세서 그것을 번번이 끊어 버렸습니다. 그를 길들일 만큼 힘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들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그는 무덤 동굴과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움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시체들을 노렸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죽음을 몸으로 보여 줍니다. 그는 크게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쳤습니다. 별거벗고, 고립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람다움을 잃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돈 속에서 해방과 치유를 갈망하는 온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분께 달려가 그분 앞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 질렀지만, 그것은 더러운 영의 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강한 자입니다. 간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힌 것처럼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괴롭히는 영아!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더러운 영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레기온)은 군인 6000명과 기병 12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가파른 호숫가에 큰 돼지 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분께 빌었습니다. 그들은 늘 머물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리고 달리 방법이 없으면 짐승이라도 찾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파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돼지 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로 뛰어들었고,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2000마리쯤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반감을 품게 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당황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마을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옵니다. 그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아주 멀쩡하게 예수 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곧 수많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섬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풀려난 일과 돼지들이 호수로 떨어진 일을 본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거나 예수를 초대하는 대신, 그분께 자기들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곧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로 가서 오르셨습니다. 이 호숫가에서의 그분의 사명, 이방 땅으로의 그분의 진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왕적 통치의 신호가 세워졌습니다. 갈릴리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친척들과는 전혀 달리, 꼭 예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해방하신 분 곁에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려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지를 열 도시 지역 전체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호수를 건너 돌아가신 예수의 선포 사역을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돼지들 때문에 화를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놀랐습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날마다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 1부

예수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다 - 그들이 다시 살게 되다

건너편 가버나움 근처에 이르시자,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려고 다시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에 관한 온갖 꺼림과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무언가 분명한 것이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그분을 보자, 그분께 다가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간절히 빌며 말했습니다.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저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아서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절망을 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뻣뻣하게 밀려드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이 뻘뻘한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멧지 앓는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지냈습니다. 고립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의사들에게서 고침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 보았습니다. 그 일에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그 병을 받아들이고 속으로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침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 위대한 의사, 그렇습니다, 모든 의사 가운데 의사이신 분입니다. 그녀는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결코 그분께 직접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 속에서 그녀는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분을 만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무언가를 느끼셨습니다. 곧 그분에게서 나간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그 손길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곧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지금 그것이 그분께 중요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분은 왜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께 밀려드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까지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만진 그녀를 보시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그분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겪은 일을 모두,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마지막 희망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여라.** 너는 네 병에서 나왔다. 삶의 무리가 아무리 뻘뻘해도,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이신 생명나무에서 잎사귀를 따듯이 치유를 받으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 2부

그분이 아직 그 여자와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지인들이 야이로에게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아직도 선생님을 수고롭게 하십니까? 집으로 오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무리입니다. 그들이 그 집에 이릅니다. 소란, 곧 곡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큼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러자 조문객들이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그저 예수를 신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분의 세 제자만 그 소녀에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생명과 힘이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고,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이 일을 본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놀랍게 살리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갖추도록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려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녀가 병을 앓은 뒤 기운을 차리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마주하신 것처럼 죽음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온 창조 세계를 종살이에 묶어 두는 죽음은 곧 부활하신 분의 생명 앞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막을 수 없이 옵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곳에서는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본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6장

예수의 고향 나사렛의 불신앙

그분은 그곳을 떠나, 가족과 함께 자라신 도시, 그분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그분은 자주 그러셨듯이,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의 손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은 평범한 일꾼이 아닌가. 서기관은 결코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살아 있지 않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 우리 동네에 함께 있지 않은가.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이미 그를 쫓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분을 대하는, 겉보기에 호의적이던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면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친척들 사이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의심하고, 아니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그저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몇몇 약한 사람들, 병자들이 있어서, 그분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오거나 사람들이 데려온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의 불신앙에 놀라셨습니다.** 그분은 늘 불신앙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기 때문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부분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꾼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걸림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데까지 뚫고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 그분은 주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열두 제자의 사명

그런 다음 그분은 분명한 뜻을 품고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둘씩 짝지으셨습니다. 서로 잘 맞는다고 보시는 대로 짝지으셨습니다. 돌이면서 서로 붙들어 주고, 지켜 주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지역으로 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 곧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어, 예수를 통한 왕적 통치의 시작을 보여 주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을 선포하는 일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양식도, 자루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선지자의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옷도 두 벌이 아니라 한 벌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 자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회개는 그들의 삶에서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전, 생계, 편안함이 그들의 파송에서 결코 첫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급한 사명이었습니다. 큰 준비 없이 당장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갈릴리에 계시던 바로 그때를 위한 특별한 파송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은 그들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나라들로, 다른 조건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전하고, 또한 영과 혼과 몸의 치유를 통한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내심을 받아 가다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귀와 마음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계속 나아가라.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너희 신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들은 복음이 아무래도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복음은 급한 은혜의 소식이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요가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 곧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과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로 다녔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이 열리는 곳마다, 기회가 생기는 곳마다, 시간을 잃지 말고 곧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레 요한이 목 베임을 당하다

제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받았지만, 그들은 -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 무슨 일이든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통치자들과 왕들과 황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세레 요한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처절한 사건을 통해 **세상과 그 왕들의 본질과 예수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줍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 왕이 예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그분에 대해 하는 말들은 헤롯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가 처형한 세레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래서 그런 기적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헤롯은, 자기가 목 베게 한 세레 요한이 살아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헤롯은 얼마 전에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그의 이복형제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롯이 그녀를 빌립에게서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레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당신이

당신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진실을 전달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노리며 죽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크게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주 난처해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지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헤로디아가 냉혹하게 기회를 잡았고, 헤롯은 스스로 자기 손을 묶어 더 이상 요한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들, 많은 고관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흥청망청하고 취해 가는 잔치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춤이 헤롯과 상에 기대어 앉은 모든 사람을 홀렸습니다. 헤롯은 너무 났을 땀을 흘려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헤롯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를 용납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 없이는 그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딸은 이 후한 제안을 어머니와 의논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때가 왔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요구를 듣고 몹시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모두 그것을 들었으니,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형 집행인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가져왔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예수께 돌아오다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 그렇습니다, 겪은 모든 일을

그분께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서 좀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늘 병과 질문을 안고 온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있을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려는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마을에서 걸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5000명의 남자와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배불리 먹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긍휼이 밀려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도자와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종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세하게, 꽤 오래, 알아듣기 쉽고 생생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큰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때, 그날 낮과 저녁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던 제자들이 그분께 옵니다. 여기는 한적한 곳입니다 - 바로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주변 농가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놀라고, 아니 당황하여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빵을 마련합니까? 우리에게는 200테나리온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가서 여기서 빵을 몇 개나 구할 수 있는지 보아라. 그들이 돌아왔는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무리로 나누어 모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봄이었고, 풀은 어리고 푸르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이 저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린 물고기 두 마리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큰 무리가 먹었는데, 놀랍게도 빵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 나누어 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남은 것으로 열두 바구니가 찼고, 그것을 열두 제자가 거두었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약 5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 언젠가 온 땅의 현실이 될 새 창조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고 모두가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왕이요 목자로서 백성을 먹이십니다. 자기 궁전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채 자기만을 위해 넘치도록 잔치를 벌인 헤롯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는 새롭고 더 위대한 모세이십니다. 무리를 질서 있게 앉히시고, 광야 같은 한적한 곳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가르침과 넘치는 음식을 주십니다.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시면, 여기 호숫가에서처럼 모든 제자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가 해야 한다! 나의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도전이든, 해결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적이 있든 없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탄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써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감행할 때, 그분이 거기 계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다

그리고 곧 그분은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 뱃새다로 먼저 가라고 이르십니다. 그분은 몸소 사람들을 떠나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그분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그분께는 그것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귄과 만남입니다. 호수 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분의 기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물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맞바람

때문에 거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깊은 밤, 새벽이 오기 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단한 땅 위를 걸으시듯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산 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바다 위에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저 놀라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를 위해! 그들은 그분을 보고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자신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그들에게로 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거슬러 불던 바람이 날아가 버린 듯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질겁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천 명이 뺑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었으니, 그들은 예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분과 가장 가까운 그들조차 그분이 참으로 누구신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할 수 있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셔야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피곤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전해 준 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지켜보십니다. 밤에 산에서 그들을 보셨고, 도우러 오셨습니다.

수천 명의 병자가 고침을 받다

그 뒤 그들은 벧새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이르러 거기에 배를 댔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소식이 다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모든 병자가 침상과 담요에 실려 예수께 왔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도시와 마을과 농가로, 장터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도록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진 사람은 모두 즉시 나았습니다.** 뒤에서 예수를 만지고 즉시 나왔던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어쩌면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7장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곳에서 많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등장과 말씀과 행하신 일이 온 땅에 퍼졌고, 예루살렘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나라 북쪽을 살펴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씻지 않은 제자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은 먹기 전에 적어도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장터에서 돌아와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향아리, 잔, 구리 그릇, 침상과 방석을 두고도 이런 씻음과 정결 의식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참으로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의 책 29장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다. **이 백성은 입술로만, 빈말로만 나를 공경한다.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나에게 참으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대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 가고 무효로 만들 만큼 영리하다. 그 대신 너희 자신의 계명과 규칙을 세우려고 말이다. 모세는 말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 부모가 늙어서 필요로 하는 것, 너희가 그들에게 드려야 할 것을 성전에 바칠 예물이라고 한다. 부모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좋은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너희 자신의 규칙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교활한 일은 더 많이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정확하고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를 떠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밖으로 나간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계획이 나오기 때문이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하는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다. 이 모든 악은 사람 자신에게서, 그 속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씻지 않은 손이 아니다.** 자기 생각의 세계와 감정을 찍은 사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아마 예수께서 여기서 늘어놓으신 것들도 보일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의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부정하며,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예수를 통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제 다음 사건에서도 보여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 자체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다

그분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숨으시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랬듯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그분에 대해 듣자마자 곧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더러운 영, 곧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태생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서 감동하실 말을 했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 아래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네가 이 말을 했고 부스러기로 만족하니, 너는 빵을 받는다.** 네 딸에게 가거라. 귀신이 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갔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귀신은 정말로 나가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다시 듣고 또렷이 말하다

그 뒤 그분은 두로를 떠나 시돈을 거쳐 다시 게네사렛 호수로, 열 도시 지역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분은 많은 귀신에게 묶여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 하나를 그분께 데려옵니다. 그는 말을 아주 힘겹게 했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그분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를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그것은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랬듯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사람들은 그분의 기적을 더욱더 널리 알렸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에 그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었고, 바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그분은 귀먹은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게 하신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8장

4000명이 배불리 먹다

또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이 불쌍하다.** 나 때문에 그들이 벌써 사흘째 여기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지금 빈속으로 집에 가면, 더구나 몇 사람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쓰러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바깥 광야에서 이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일곱 개입니다, 하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5000명을 먹이실 때의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분은 빵 일곱 개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말린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두고도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빵을 거두니 일곱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과 몸을** 배부르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신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앞서 그 여자가, 개들도 상 아래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부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을 생명의 말씀과 먹을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고, 그들은 달마누다로 갔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원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 예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처럼 그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분께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통해 해방되리라는 표징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판과 불신앙이 너무 커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표징을 요구하는가? 이미 나를 통해 아주 많은 표징이 일어났다. 아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표징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표징을 받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음 없이는 안 된다. 그분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표징을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다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빵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면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예수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배 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과 사람의 계명과,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조심하여라.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여라. 그의 폭정과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 그렇다, 하나님 없는 삶을 조심하여라. 이런 누룩이 너희 마음에 스며들어 그것을 망치게 하지 마라.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 곧 자기들이 빵을 잊어버린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일깨우려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잊어버린 빵 생각을 하느냐?! 빵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아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느냐? 이사야는 백성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마가복음 4:12). 그런데 너희도 그러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빵 다섯 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느냐? 먹고 난 뒤에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열두 바구니입니다. 얼마 전에 빵 일곱 개가 4000명을 배부르게 했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일곱 광주리입니다, 하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겨우 13명인데,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너희가 겁을 내느냐? 너희는 그 작은 믿음으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그분은 결코 그분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그 뒤 그들은 벳새다에 이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그분께 데려와, 그를 만져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분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았지만, 아직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둘러보니, 이제 성한 눈으로 보듯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 모든 것을 알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징을 보기는 했지만, 아직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아주 또렷하게 보려면 두 번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손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올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우상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불리는 요단강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가는 동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겪은 모든 일을 두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들은 터라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도 합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잘 아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제자들의 대변자인 베드로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아니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 예고

베드로가 - 모든 제자를 대신해서도 - 이 참된 말을 한 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가운데 첫 번째였고, 아주 드러내 놓고 자세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자,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에게서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던 베드로는 그분을 따로 붙들고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리려 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고, 일어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며, 모두 앞에서 엄하게 바로잡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본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해답이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원자요 왕이 된다. 사탄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을 얻으시는 것을 막으려 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뒤 그분은 무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신 일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스스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 말씀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기 삶의 첫자리와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붙들고 구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들어라. 나 때문에, 또는 좋은 소식, 곧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도, 마지막에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되살 수 있겠느냐? 땅 위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는 모자랄 것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백성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과 내가 가르친 것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고 그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럴 것이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어쩌면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9장

헤르몬산 위의 눈부신 영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서 있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몇새 뒤, 그들 가운데 세 사람에게 그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의 헤르몬산에 오르십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따로 산을 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했습니다.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희어졌습니다. 땅 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희었습니다. 그렇게 흰 옷은 다니엘이 7:9에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 자신만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라기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들인 말라기 3:1; 4:4-6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이 다가온 끝과 심판과 구원의 표징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왜 그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세 분을 위해 저희가 초막을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일상에서 동떨어진 산 위에 눌러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을 위해서는 산 위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미리 보여 주신 것이었지, 제자들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일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이미 한 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먼저 듣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중요하다! 너희가 본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 두 사람은 사라졌고, 예수만 보였습니다. **랍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엘리야와 모세가 시작하고 예언한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를 능력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골고다를 거쳐서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것,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개입과는 달리,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부어 주심을 통해 땅 위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제자는 내려오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두고 의논했습니다. 그 일이 그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성경에서 아는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끝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하던 율법 교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언제 어디에 왔었습니까?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회복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그러면 왜 성경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도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백성을 회개하라고 부른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그대로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요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한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 곧 요한의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앞서 길을 닦았던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일을 겪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옛날 모세가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얼굴에 빛을 내며 백성에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참 모세**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산 위에 있었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상과 날마다의 삶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풀어 주시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왔을 때, 거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다른 제자들과, 그들과 논쟁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그분을 보자 놀라며 그분께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두고 논쟁하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말 못 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이 제 아들을 붙잡아 땅에 내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갑니다. 그러고는 마치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온몸이 판자처럼 뻗뻗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속수무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두지 않으시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로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소년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이신 것을 보자마자 몸부림치며 자기 힘을 보여 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그것이 소년을 붙잡아, 입에 거품을 문 채 땅에 내던졌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들이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떤 때는 불 속에, 어떤 때는 물속에 던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믿습시다 - 그런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불신앙이 뒤섞인 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며 그는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물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악하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 하게 하는 영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돌아오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년을 이리저리 잡아 흔들었습니다. 강하신 분 예수께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 이 영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도망쳐야 하기 전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이 떠나자 소년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이 괴롭히던 영에게서 풀려난 그를 예수께서 생명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만 남게 되자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저희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은 너희가 특별히 깊이 기도해야만 쫓아낼 수 있다. 영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강하다. 너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느냐? 너희의 말이나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야 관계가 결정한다. 기도의 훈련과 믿음이 결정한다. 너희 자신과 너희 경험을 신뢰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언제나 거듭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거듭 새롭게 그분의 능력을 받는다.**

처음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자체가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끝을 설명하려 하셨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그로써 자라납니다. 가장 큰 믿음은 믿음의 길의 처음에 요구되지 않습니다. 늘 새롭고 흔히 점점 더 큰 도전들을 통해 조금씩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감행할 때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 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시며 그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아무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분을 넘겨준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낯설었고, 그들은 그분께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꾸중을 들을까 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장 큰가?

그 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집 안에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두고 다투었느냐?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일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열두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크고 중요한지, 또는 곧 그들의 선생님이신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될지를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 가장 큰 본보기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들은 명예도 지위도 없었고, 권리도 거의 없었으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동시에 나를 보내신 분, 곧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이를 맞아들이려면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맨 아래까지

낮아지고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멸시받던 종이신 예수를 맞아들이려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편이 아니었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곧바로 우리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도와주지 못한 그 소년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막는구나. 언젠가 여호수아도 영으로 예언하는 두 사람을 막으라고 모세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모세는 민수기 11:26-29에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오직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건네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박해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물 한 잔이 그 순간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작은 사람들, 사람들이 몸을 낮추어 다가와 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죄로 유혹하는 일과 그 결과

누구든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믿음의 올무를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께는 죄로 유혹하는 이 일이 그만큼 끔찍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쟁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유혹과 저항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의 권세는 모든 제자의 삶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이것은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악이 피고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문제입니다. 첫째가 되려는 욕심이 바로 그런 악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에서는 희생과 자기를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진지한 말씀도 아닙니다. 네 손이 너에게 믿음의 올무가 되어 너를 죄로 이끌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네 발이 너에게 믿음의 올무가 되어 너를 죄로 이끌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네 눈이 너를 죄로 이끌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새 세상, 그분의 영원한 왕적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손과 발과 눈은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사람이 죄로 이끌리고 죄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생은 잠시 누리는 죄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 요구는 지옥 자체와 마찬가지로, 죄와 죄로 유혹하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지 보여 주는 강렬한 그림입니다.** 지옥, 곧 게헨나는 실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는 힌놈의 골짜기입니다. 늘 불이 타고 있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시체까지 포함된 쓰레기 때문에 구더기들이 늘 새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끔찍한 우상 숭배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과 얽혀 있던 이곳을, 예수께서는 불의하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의 대명사로 쓰십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의 소금에 관한 세 가지 엄숙한 말씀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처지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온 교회가 박해의 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제물이 소금으로 깨끗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힘을 잃고 아무 효과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그 효과를 내거나 되살리겠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땅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 가운데 소금의 힘 있는 효과가 있게 하여라.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너희가 평강의 왕을 따른다면, 그분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얼마

전까지 너희를 따르려 하지 않던 사람들과도 한 상에서 먹어라. 명예가 없는 작은 사람들과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너희 지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어라.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10장

유대로 가시는 예수

그 뒤 그들은 길을 떠나 유대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분은 이 기회를 살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그분을 시험하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두 앞에서 그분께 도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잘못된 대답이나, 적어도 의심을 살 만한 대답을 하도록 꾀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 시절 서기관들 사이에는 모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근거는 간음뿐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라도 되는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덜 중요한 이유로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편이 더 편했습니다. 다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 씻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정함에 관해서는 사람의 속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한 그들의 완전히 잘못된 태도를 꿰뚫어 보시고, 되물으심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좋은 질서를 거슬러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일 뿐이다. 너희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무엇까지 해도 되는지만 묻는다. 그냥 쫓겨난 여자가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너희는 무엇이 어떻게든 아직 허용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함께 혼과

몸으로 굳건하고 새로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이것도 모세가 창세기에서 말한 것이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내보내는 일에 관한 모세의 계명은 여자를 보호하고, 그런 갈라짐의 나쁜 결과를 되도록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 의지할 데도 없고 보호받을 데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혼이나 아내를 내보내는 일을 좋은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2:16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오해했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랬듯이, 그들끼리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내보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맞다고 여긴 것을 반박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그분의 계명, 그분의 창조 질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언제나 복이 됩니다. 문제는 모세가 무엇을 허락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입니다.

예수와 어린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은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혼 문제에서 여자를 감싸 주시고 제멋대로 하는 일에서 보호하셨듯이, 이제는 똑같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돌리십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그분이 만져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잘난 체하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가 나에게 오게 하고, 결코 막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아이를 맞아들이듯이, 자신을 작게 만들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부자와 영생

그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먼저 나는 길 위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실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너는 그분의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너에게 한 가지가 모자란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충격을 받은 채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이 요구가 그에게는 너무 철저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으로 그는 영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첫자리에 두라는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일을 지켜본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신뢰합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은 어떤 마음이든 움직여 복음을 믿고 나를 따르게 하실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보람이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의 이 말씀에 깊이 찢렸습니다. 그들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까?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돌아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받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백 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미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삶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받을 받는다 - 그러나 박해와 함께 받는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새 세상의 영광의 다가올 시대에 영생을 받는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 - 아직 아니”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새 세상의 미래가 지금 이미 현재의 이 시간 속으로 작용합니다. 백 배는 지금 이 시대의 물질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족 같은 공동체와 그들의 소유에 풍성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삶에서 꼴찌인 많은 사람이 다가올 영원한 생명에서 첫째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삶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께 실제로 그러한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 이 삶에서 모든 일에 그분을 앞세운 것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다

예수와 열두 제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다른 여자와 남자들은 요단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그들 앞에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여느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그분은 열두 제자를 곁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투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미심쩍은 부탁을 가지고 예수께 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시작될 때, 저희가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전혀 모른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승리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려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 끔찍한 고난의 세례를 겪어야 합니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내가 견디는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다른 열 제자는 이 대화와 두 제자의 요구를 듣고 그 두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위대함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불러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잘 알듯이,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억누른다.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제 욕심을 위해, 자기 권세의 자리를 지키려고 남용하는 버릇이 있다. 너희 가운데, 제자들의 가족 안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크게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꾸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은 인자를 통해 드러난다. 그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의 목숨은 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의 포로 생활에서 구속하고 속량하기 위해 “맞바꾸어”질 것이다.**

눈먼 바디매오가 고침을 받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안에서 큰 무리가 예수와 제자들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도시를 떠날 때,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에게서 동냥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매오, 디매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예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바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예수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잠잠하라고 그를 으박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러라! 곧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운이 좋다.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보시려고 한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하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했으니,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자 그는 곧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 곁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제자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야 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귀와 죄와 자기중심의 노예 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그분의 목숨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고, 권세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매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보좌를 원했습니다. 바디매오는 먼지 속에 앉아 구원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어쩌면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11장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으로 환영받으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곁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 두 사람에게 일을 맡겨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마을에서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짓이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요?”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두 사람은 바깥 문 앞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상대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르신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큰 왕의 도성으로 가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9:9에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넌지시 알렸습니다. 많은 것이 그것을 가리켰고, 사람들은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높이는 표시로 자기 겂옷을 그분 앞 길에 깔았습니다. 양탄자처럼 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는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의 순례자들도 있었는데, 그분 앞에서 걸어갔고,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시는 분을 찬양하라! 마침내 다윗의 나라가 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8:26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듭 분명히 하셨듯이, 그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하려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따를 사람들의 삶도 지배했습니다. 겨우 한 주 뒤에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성 밖 골고다로 나가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환호한다면, 우리에게 영예를 가져다준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으로서 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엇보다 먼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도성 안에서 환호 소리는 금세 잦아듭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 그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다른 많은 순례자처럼 주변 마을에서 밤을 지내시려고 도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그 성전 -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푸른 잎이 달린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셨습니다. 봄이면 흔히 그렇듯이 잎이 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이른 무화과를 찾으시려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아직 늦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그 나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복을 주고, 고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의 성전 방문과 그분이 거기서 가르치시고 행하실 일은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이 상징 행위와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정체성의 자리였던 거대한 성전 중심지는 곧 끝을 맞고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그분은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바로 주변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6:7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민족들을 초대하기는커녕 그들을 내쫓는 곳으로 만들었다. 너희는 이

집을 너희의 집으로 만들었다. 너희 자신을 자랑하려고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세속화되었고, 성전을 자기들의 은신처와 관할 구역으로 선포한 강도들이 이끌고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이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7:11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 이것이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자기 사명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행동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성전에 대한 심판과 제사의 끝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회복이 아니라 끝을 가리킵니다.** 성전도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본래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때는 끝나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모든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이 속할 새로운 영적인 성전에 자리를 내줄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격분하여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을 자기들의 은신처로 만든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 성전 행동은 결국 그분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재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리다 - 중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과 용서이지, 성전 건물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다시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갔습니다. 나무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기억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한 가지는 분명하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될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함께 서서 기도할 때, 먼저

너희에게 원망 살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믿음과 용서하려는 마음이,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에만 쓰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와 믿음과 용서가 예수를 따르는 새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공동체가 참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나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예수의 권위에 대한 서기관들의 질문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분이 성전 안을 거니실 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예수께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성전에서 어제 한 그런 일을 할 권위와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나에게 대답하여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에게 묻는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너희는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의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무리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무리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계산된 이유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주의 사흘째 날에는 드러내 놓고 맞부딪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지혜가 그분을 죽일 사람들을 아직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그래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본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12장

세를 준 포도원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 포도원인 이스라엘과 그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 곧 폭력적인 농부들: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 -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모통잇돌이시다

그 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곧 도성의 주민들과 온 땅에서 온 많은 순례자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다. 그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얼마 뒤 주인은 정당한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서 순종과 경배의 참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심하게 모욕했다. 그다음 종은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자기 몫을 받으려고 거듭거듭 사람들을 보냈다. 그는 놀라운 오래 참음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때렸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불길하고 고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생각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뿐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적어도 그에게는 존경을 보이겠지.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던 포도원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자, 그도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된다. 그것은 큰 자기기만입니다. 포도원은 언제까지나 주인의 것입니다. 아들이 오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포도원의 임자요 주인인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게 하고, 자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낯설게 들리느냐? 너희는 성경 시편 118:22에서 읽지 못했느냐? 건축하는 사람들, 곧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이 함부로 내버린 돌이 모통잇돌, 곧 성전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 일은 주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옳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그분을 잡아 죽이기로 더욱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도자로 있는 바로 그 무리가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과거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거둢거둢 물리치고 때리고 죽인 농부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열매 없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일깨움 받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 심판은 기원후 70년에 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분을 그대로 두고 물러갔습니다.

폭발력 있는 함정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 뒤 지도자들은 다시 교활하고 악한 속셈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런 속셈만이 이 두 무리를 한데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꾀합니다. 비꼬듯 치켜세우며 그들이 그분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고 공정하며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평판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 가르칩니다. 말해 주십시오.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유월절 무렵 성전 뜰에서 나온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던 달아오른, 폭발 직전의 분위기 속에 떨어집니다. 메시아로 환영받은 그분이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하시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내팽개친 비겁한 부역자라고 몰아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금 내기를 거부하시면, 로마에 맞선 정치적 반란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대답이든 그것만으로 그분을 고발하거나 제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 이런 함정 질문을 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주어라. 그 동전을 좀 보자. 그분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질문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데나리온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동전에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황제의 형상입니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아들 티베리우스(Tiberius)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자 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황제의 영역, 곧 세금과 정치를 하나님 나라와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로마 황제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십니다. 그분께는 언제나 온전하고 첫째가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 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로마에 맞선 폭력적인 봉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은 분명 수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돌려준다는 것은 그것으로 더 이상 사고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함정 질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도 그분께 왔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남자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남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곱 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맏이가 결혼했는데, 그와 그의 아내가 자식을 얻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우가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식을 얻기 전에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형제가 다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더 이상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는 사람을 낳고 불어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 너희는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곁에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미 저편 하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마지막 말입니다.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논쟁하는 것과 예수께서 얼마나 잘 대답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 관한 질문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 서기관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선생님. 참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깨달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큰 무리가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만 메시아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앞을 내다보며 예수를 높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놓쳐 버렸거나, 한 번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가르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멋진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회당과 잔치에서 특별한 자리를 탐낸다. 과부들의 살림을 삼키고, 겉치레로 특히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영과 지위의 상징과 긴 기도가 경건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 무리를 엄하게 비판하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치레의 경건이나 위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혼자 와서 렵돈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한 고드란트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한 가지를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녀보다 앞서 무언가를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 **모두가 넉넉한 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한 절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쌓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을 배웠습니까?

예수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감탄을 말씀드리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13장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성전의 파괴

예수께서 성전 건물을 떠나실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거대한 돌로 지은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모두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 건물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밑바닥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 뒤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더 높은 감람산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는 성전 단지가 인상 깊게 내려다보였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네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표징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의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우리가 바랐을 법한 것과는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거나 헛갈리게 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경솔하게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는 것은 그와 다를 것이다. 너희가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그럴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듣고 겪더라도,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화목하지 못한 세상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의 시작일 뿐이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 새 세상이 태어나는 진통의 시작이다. 70년에 티투스(Titus)가 성전을 파괴한 일과 함께 환난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어디서나 있을 박해와 환난

너희 자신을 살피라! 이리저리 보고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보아라! 사람들이 너희, 내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설 것이다. 그들에게 증언이 되어, 그들이 내 이름을 듣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만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가 재판을 받게 되거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변호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온 땅에서 내 증인들과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또는 자기가 해를 입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견뎌라!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

너희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 테라스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를 둔 여자들에게는 특히 힘들 것이다.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는 가장 끔찍한 때가 될 것이다. 그 전의 어떤 것보다, 그 뒤의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할 것이다. 주께서 그 기간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그 기간을 줄이셨다. 누가 너희에게 “여기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거나 “저기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며,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해 두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온 세상에 닥친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 갑자기 그때가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온다. 우주와 정치의 큰 흔들림이 그것을 열고, 틀림없이 알릴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표징들이 메시아께서 영광 가운데 곧바로 오신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하늘 구름 속에서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큰 능력과 권위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과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어,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 제자들을 온 땅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성전 주위에 모였듯이, 새 창조가 시작될 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들어 보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돌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알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 이 하나님 없는 인간 부류는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곁에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유효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와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적대감이 아무리 위협적이든,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것은 집을 떠나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저마다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아침일지 —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감탄을 말씀드리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14장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공모

이를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너무나 굳게 먹고 있어서, 그분을 붙잡아 죽일 계락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존재 전체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백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이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되도록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절 동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 사이에 소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께 기름을 붓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한 여자가 순수하고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손에 들고 용기를 내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옥합의 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둘도 없는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던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경건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미리 정해 둔 일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하고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넘게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300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의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난처하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정말로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 좋은 소식이 알려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이야기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할 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과 예수와 함께 겪은 모든 일이 담겨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하고 영속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실, 고난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좋은 일은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토록 무의미하고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 선한 일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예수께 기름을 부을 시간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실제로 앞당겨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과 달리 그분의 죽음을 미리 짐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다가 배반자가 되다

그 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시카리우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 줄 좋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

누룩 없는 빵만 먹는 명절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어린양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양과 함께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의 시대에 더 높고 동시에 더 깊은 방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어린양이십니다. 그분의 목숨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어집니다. 이제는 더 큰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모세처럼 홍해 앞에 서서, 더 이상 위협적일 수 없는 것과 맞서실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선생님을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습니다. 성안으로 가거라! 거기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여라. 우리 선생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어디에 내어 줄 수 있겠소? 그러면 그가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다. 방석이 갖추어져 있고 잔치를 위해 이미 준비된 방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라. 두 사람은 성안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했던 것은, 암살 계획과 자기들 가운데 있는 배반자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숨어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 배반자도 함께 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근심하여 하나씩 그분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주의 만찬을 세우시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식사를 세우십니다. 그분 자신을 통한 **새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옛 언약의 표현인 옛 유월절 식사를 영원히 뒤로하십니다. 식사하시는 동안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도 그들에게 주셨고, 모두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시작된 날에 새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들과 이방 민족들에 의한 내 죽음이 내 끝이 아니다.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뒤 그들은 유월절에 늘 하듯이 할렐 시편, 곧 시편 115-118편을 노래하고 감람산으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위대한 모세”로서 열두 제자보다 앞서 가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아니 온 세상보다 앞서 가십니다. 옛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노예 감독과 맞서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홍해에서보다 더 큰 폭풍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세상을 자유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곧 빵을 떼는 일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견디시고 싸워 얻으신 것을 한 끼의 식사 속에서 기억하는, 유일하고 깊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견디시고 싸워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자원하여 내어 주신 그분이 참되고 더 위대한 유월절 어린양이십니다. 그 피가 영원히 구속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날의 성찬은 식사의 상징들 속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새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비유적인 의미로, 기억을 돕는 것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선포로서, 실제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신 예수의 구원 사역을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실제적인 임재는 이 기념의 식사를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께로 모이는 곳과 그 사람들 곁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스가랴 13:7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한 뒤에 너희의 선한 목자로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만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하고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저는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장담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평가는 곧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의 박해받는 교회가 고난 속에서 굳게 서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힘과 용기를 자기 안에서 찾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겻세마네 -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로 씨름하시다

그들은 겻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감람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분을 덮쳤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닥쳐올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내 영혼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여기 나와 함께 머물며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그리고 그분은 몇 걸음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할 수만 있다면 이 힘든 시간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고난의 잔은 죄인들의 손에 떨어져, 그들과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무 힘없이 넘겨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원수인 죽음에게 패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아버지의 구원하시려는 뜻에 속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끝까지 겪어 내는 것 말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싸워 얻으셔야 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서의 해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결과를 감수하시며 그것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조차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두려움 속에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기리고 그 깊이를 이해할 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뒤 그분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다가올 시험에서 너희가 강해지도록 기도하여라. 너희 안의 영은 원하지만, 너희 인간의 본성은 약하다. 그것에 기댈 수는 없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가셔서 앞서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쉬느냐? 이제 그만, 때가 왔다! 이제 인자가 사람들, 곧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벌써 와 있다.

아들이 그분의 아바께 드린 세 번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잔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종하며 다가올 일들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고난 -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십니다 - 을 아들은 홀로 견디십니다. 그분께 가해지는 모든 일과 어둠의 폭력이 뜻하는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다만 잔이 비워진 뒤에야 응답받습니다. 늦어도 다시 살리심에서 그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응답받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을 영원히 뒤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반자는 그들과 신호를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인사하며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를 붙잡아 단단히 지키며 끌고 가라. 그래서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랍비여! 하고 외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비겁하고 음흉하게, 그들은 밤에, 되도록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유다의 비꼬는 듯한 사랑의 표시는 인간의 어둠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는 구속받지 못한 인류의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마음을 대표합니다.** 예수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귀 하나를 잘라 버렸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잔을

받으시는 예수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비폭력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유례없는 낮아지심 속에서 예수께서는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심판하시려는 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죄자라도 되느냐?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오다니.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쳤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이 나에 대해 미리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몸에 베 홀이불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홀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저자 마가가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 최고 의회 앞에 서신 예수 – 그분이 정죄되시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와 율법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앞서의 가까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궁전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쬔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그분을 사형에 처할 판결을 미리 내리려고 증언으로 예수께 죄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이 예수를 거슬러 증언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몸소 일어섰습니다. 백성도 함께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고발 거리를 찾지 못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가운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거슬러 내세우는 것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셨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분께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약속된 구원자,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들,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을 말씀들과,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들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건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질 차례였습니다. **내가 그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아들로써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यो?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머리에 천을 씌우고,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쳤느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 뒤 법정의 하숙들이 그분을 넘겨받아 뺨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지도자들부터 하수인들과 덩달아 끼어든 사람들까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주장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 판결을 집행할 수도 없었고, 집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선생님을 부인하다

베드로는 아직 아래 뜰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불가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소! 그러고는 바깥 앞뜰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여종이 거기서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과 한패요. 당신도 그 나사렛 사람이 온 갈릴리 출신이니까! 당신 말투가 그걸 분명히 보여 주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 순간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충성 맹세가 그토록 빨리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감탄을 말씀드리십시오!

15장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 약식 재판

금요일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렇습니다,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전체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도가 그들의 판결을 따르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예세네파 구역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분에게 빨리 사형을 선고하기를 바라며 예수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보통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에는 치안상의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 군인들과 함께 헤롯의 궁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긍정하는 대답은 빌라도에게, 이것이 정치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그들의 고발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느냐?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아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고난받는 종의 역할에 자신을 내맡기십니다. 그분의 침묵과 수동적인 태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 신비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넌지시 보여 줍니다. 아들은 가장 큰 반대와 고난에도 그 계획에 복종하십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고 –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유월절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갇힌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였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없애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무리가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른 죄수를 풀어 달라고 할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보기에 죄 없는 예수를 풀어 줄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의 마음을 돌리려 했을까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도록 무리를 부추겼습니다.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나 무리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나?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해마다 그랬듯이 무리의 비위를 맞추려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바라바는 뜻밖에 찾아온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무신경하게 대한 몇 가지 일 때문에 어느 정도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에게 더없이 불리했을 것입니다. 자기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는 로마의 원수인 시카리우스, 곧 테러리스트 대신 죄 없는 나사렛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는 예수를 그들의 뜻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알아보려 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잔혹함

군인들이 예수를 궁전 안뜰로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 처형 동안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고 군대 전체가 소집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부대의 군인들은 그 절차를 잘 알았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붉은 겹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은 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매 맞아 피 흘리시는 예수께 비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가시관이 그분의 머리 살갓에 박히도록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찼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침을 뱉고, 조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절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이 불의한

구경거리를 끝내자, 그들은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려고 그분께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길

그 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사형수는 나무를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 약하셨고, 군인들이 보기에 그분이 그 전에 죽을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날카로운 뺏조각을 박은 가죽 끈으로 맞은 채찍질이 예수의 등을 찢어 놓았고, 이미 심한 출혈과 끔찍한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는 마침 밭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골고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그분을 예루살렘 성문 밖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번역하면 해골의 곳입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가로 들보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것은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분의 옷을 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형수의 소지품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분을 처형하는 죄목이 십자가 위쪽 패에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은 빌라도의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분을 잠재적인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꼬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막으려 했지만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던 참된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라바의 동료인 무장 투쟁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겁주려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그저 사형 판결을 집행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멸시키고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로마의 위협 전략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하, 너는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마침내 목적을 이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고치고 낮게 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 그분은 거짓 메시아임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거쳐서만 진짜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조롱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들의 말은 예수께 큰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그분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나무에 머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범죄자도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분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고난도, 박해도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펼치십니다 - 낮아지심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냅니다. 그분과 달리 권력을 찾고, 폭력을 휘두르고, 낮은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과는 다르십니다. 예수의 낮아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둠이 온 땅에, 아니 온 세상에 덮였습니다. 증언된 이 자연현상을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일식이 아니라, 유일하고 전에 없던 일,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치는 어둠이었습니다. 옛날 애굽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아들이 죽었던 때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아들이 죽으시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떠맡으십니다. 묵시적인 분위기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계신 예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내쫓기시고, 멸시받으시고, 괴롭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권세와 마주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짐을 지십니다. 어둠이 끝나 갈 무렵,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다니! 아람어에서 번역하면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몇 사람이 그분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가져와 갈대에 꿰어 그분의 입술에 대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는지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의미와 그 필요성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효력을 잃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고 더 나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예수의 여제자들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십자가 맞은편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은 굳은 영혼 깊은 곳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십자가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는 더듬거리며 이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말을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던 여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랍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한 말고는 모두 달아난 제자들과 달리, 그들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분을 따르는 다른 많은 여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여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의 참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친구들과 원수들을 가립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십자가의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로마 백부장은 사람이 편을 바꿀 수

있고, 그와 똑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저녁이 되어 해 질 무렵 안식일이 시작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그 시신을 장사지내려 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은 제자, 적어도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실히 하려고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자, 그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베를 샀습니다. 그는 그분을 조심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분을 베로 감쌌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덤 돌을 굴러 굴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의 여제자 두 사람이 그가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랍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슬픈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까? 적어 두십시오!

16장

세 여자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다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의 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이미 하루 동안 누워 계셨을 때, 세 여자가 예수께 바르려고 값지고 향기로운 향유를 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메시아께 마지막 도리와 예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주 이른 아침, 그 주간의 첫날, 막 해가 뜰 때 그들이 무덤에 옵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가 그 몇 톤이나 되는 무덤 돌을 굴러 줄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특별한 일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슬픈 도리를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거대한 둥근 무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흰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머리맡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이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보아라, 여기가 사람들이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특히 자기가 그분을 부인한 일 때문에 몹시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알려라.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만나고 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와 달아났습니다. 떨림과 놀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아무에게도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두려움을 남긴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자들의 얼굴에서 알아볼 수 있다. 독자는 알아야 한다. 이 증인의 보고는 그저 평범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참된 개입**에 관한 것이다.”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시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그분이 살아 계시고 자기가 그분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다른 두 제자에게, 그들이 시골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그분을 만난 뒤 곧 돌아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예수께서 열한 제자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친히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완고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증인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파송 명령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나가라!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복음의 이런 초자연적인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새 언어로 말할 것이다. 그들은 독사를 집어 들고 떨어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독이 든 것을 마시게 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시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고, 하늘 세계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파와 함께하셨고, 표징과 기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새롭습니까?

무언가를 배웠습니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서 그분에 대해 읽은 것을 두고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맺는 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지, 또한 그분에게서 오지 않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모든 좋은 말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해 주십시오: hj-ronsdorf@t-online.de

신약의 다른 본문들은 www.hans-joerg-ronsdorf.d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마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소리 내어, 두 번 이어서 읽으십시오.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다시 만나면 여러분의 경험과 겪은 일을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며,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십시오.